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1. 서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가 만들어진지 이제 3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30년이면 한 세대가 교체된다고들 한다. 숫자 자체가 큰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님은 모두가 알지만, 무언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도 모두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인 듯 하다. 1991년 가을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국립 사범대학 위주의 국가 발령 체제가 기본적으로 무너져 왔지만, 가산점 등의 보완책으로 그런대로 각 지역의 교사는 각 지역의 국립 사범대학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듯이 지금 그러한 체제는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2004년 또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제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까지 없어지는 추세가 되었다.

더불어 이제는 국어교육과나 국문학과 교직 이수자, 혹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졸업생만이 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2005학년도에 4명, 2004학년도에 3명의 복수 전공 교육학과 학생들이 국어 교사가 되었고, 몇 년 전에는 미술학과에서 온 복수 전공자가 국어 교사가 되기도 했다. 현재 필자는 공대, 자연대, 농대, 사회대 등 거의 전 과에서 국어와 교직을 복수 전공하고 국어 교사를 지망하는 수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범대학의 한 학과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격과 교육의 위상

이번 논문 작성을 위해 많은 관련 자료를 읽고 검토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잡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다. 특히 교육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교육이라는 타이틀은 많으나, 그 내용이라는 것이 앞으로 많은 외국인을 상대할 제주 주민 혹은 시민들을 어떻게 교육 시켜야 하겠는가 등이다. 때문에 결론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게 해야 된다. 그를 위해 사고 방식도 바꾸고,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나서서 학생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상의 내용이 접근하기 쉽게 정리된 문건으로 제주국제협의회에서 만든 책 두 권이 있다. 우선 편의상 이것부터 검토해보자.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오름, 2003)

『국제화 시대의 제주 교육』(한울, 1995)

이 책들에 실린 발표문, 토론문, 토론 지상 중계등을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요약하면,

- 1)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 투명화 등으로.
- 2)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망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 3)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선도해야 한다.
- 4) 이를 위해서는 행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중요하므로 교육이라는 것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시키는 방도의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주로 발제자에 의해 발표된다. 발표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토론자가 토론에 나선다. 요약하면,

- 1) 발표자의 말은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 2) 현재 그렇게 변하고 있고, 다소 반발은 있지만, 제주도는 우리나라 다른 어떤 지역 보다는 모범적으로 국제화되고 개방화 되고 있다.
- 3) 그런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전통적인 문화 양식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자연 환경, 생활 풍습, 사투리, 즈낭 정신, 三無 정신, 최근 몇 몇 분에 의해 해민정신 등이 언급된다.
- 4) 결론적으로 개방화, 국제화도 좋지만, 거기에는 항상 정체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 5) 때문에 교육도 우선 정체성 교육이 우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세계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중용의 도를 발휘한다.

“각종 영화제 같은 걸 보면 가장 지방색을 잘 드러낸 작품들이 대상을 받습니다. 결국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세계시민 안목이 없는 정체성은 우물안 개구리의 배타적 고립이며, 정치 의식이 없는 세계시민의식은 밀둥 잘린 해초의 방향감 없는 표류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다양한 문화의 조류 속에서 이제 제주인은 보존해야 할 고유의 문화는 보존하면서 이질 문화에 대한 선택적 수용으로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는 국제화와 태평양 시대의 요지로서 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실 안주에 급급하기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론의 강조점 변화다. 예를 들면,

“결국 우리 제주도는 제주인들이 잘 살기 위한 교육, 제주인다운 교육을 해야 되고 한국인은 한국인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대처해야 된다.” (1995)

“제주도민의 자립 정신과 근면성을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지인에 대한 배타 의식이 강하고 협동 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 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민의 세계화가 필요한데 이에 도민 의식의 전환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세계

화에 부응할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방화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고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003)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이야기긴 한데, 그 강조점이 다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 간다.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하고, 대외 개방성도 강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주 사투리도 잘 쓰면서, 표준어도 잘 구사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 중국어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자립 정신도 강하고 협동 정신도 강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때문에 교육은 그렇게 해도, 자립 정신이 강하면 일반적으로 협동 정신은 약하고, 국어를 특별히 잘하면 일반적으로 영어는 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교육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할 수 없으니,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제주 국제자유도시로 기본 목적을 잡은 제주도의 교육 우선점은, 제주의 특수성이 아니라 세계와의 보편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그 경계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데 있다. 이처럼 특수성과 보편성이 섞여 있는 교육을 수행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3. 고전문학 교육의 가치론

교육은 의도적으로 어떤 가치를 성취하려는 일종의 인간 활동이므로, 무슨 가치를 생활에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개념이 해석되는 방식은 다르다. 이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價値있는 활동에 입문시키는 것이며,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은 학습자들이 각자의 능력, 적성, 흥미에 알맞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이홍우, 1980:137)고 할 수 있다.

교육적 가치는 어떤 내용이 대상 학습자의 유의미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련될 때 성립되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에 나타나 있는 그런 종류의 활동을 추구해야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교육적 가치는 존재론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과와 교과서의 모습은 교과서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고전문학을 포함한 문학을 교과로 상정할 때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역시 독립된 교과목으로 등장하게 되는 고등학교 이상 수준의 교육 현장이다.¹⁾ 문학이 국어 교과안에서 독자성을 띤 과목으로 설정된 것은 4차 교육과정 이후이다. 그러나 문학이 독립되었다고 해서 독립 교과가 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가 따로 만들어짐으로써, 외형상 교과적 독립성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문학 교과가 독립되더라도 국어 교과의 문학이 같이 가르쳐짐으로써, 결국 문학 교과는 국어 교과에 이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수정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결국, 중등 교육 과정, 특히 고등학교 교과목 체계의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전문학의 경우 항시 국어 교과내에 존재하면서도, 별도의 독립된 교과의 모습(3·4차 교육 과정기)를 보이기도 하고, 문학 교과내에 부분적으로 자리를 잡기도 하면서(5·6·7차 교육 과정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 교과와 교과서로 구체화되는 고전문학 교육의 양상에 대해서는 김종철(1998)을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은 ‘문화 전달과 창조’라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다. 고등학교 국어과는 보통 교과인 국어 교과중의 한 과목으로 계열에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 필수 과목이다. 이는 초·중학교의 국어과 교육의 연장선 위에서, 보통 교육으로서의 국어과 교육의 최종 단계를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 교과는 중학교 국어과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기능 영역·언어지식 영역·문학 영역의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장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교육 과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초·중학교와는 다르게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고등 수준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아울러 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닌 심미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즉 문학 작품 감상에 기초가 되는 문학에 관한 지식을 학습시켜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검인정 문학 교과서가 있긴 하지만,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문학 영역에는 문학사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문학 작품을 선별해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고전문학의 가치와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선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들은 아무래도 문학사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 의도가 교육 현장에 잘 반영 되려면, 필연적으로 문학이론 및 역사에 대한 학습이 전제된다. 그러나 이 전단계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생략되기 때문에 평가자와 학습자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다. 고전시가의 경우가 더 심하다고 보인다.

결국 학습자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 교과서 수록 고전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기 시작한다. 기존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고전성을 의심하지 않는 정철의 <관동별곡>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역설이 이렇게 생겨난다. <숙향전>을 한번도 읽지 않고 작품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시험 문제는 만점을 받고 고전문학을 잘한다는 환상을 갖는다. 그 유명한 <구운몽>도 앞부분 입몽과 뒷부분 각몽만 공부(?) 하므로, 만일 시험에서 양소유가 등장하는 중간 부분을 지문으로 한다면, 아마 출제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곤욕을 치를 확률이 높다. 모르긴 몰라도 채만식의 <태평천하> 마지막 부분을 거의 암기하고 그 풍자의 양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학습자 중에서 작품 전체를 읽어본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4.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론

고전시가 특히 기행가사를 대상으로 그 교육적 가치와 위상을 논한 글들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 주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뽑으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염은열,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1999) : 보편적인 표현의 원리 ?
- 2) 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 (태학사, 2000) : 김상욱의 “민족적 주체의 형성 ?
- 3)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 4)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2)
- 5) 김풍기,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역사적 지평』 (월인, 2002)

3)의 254쪽에서 정기철은 고전시가의 교육적 가치는 “대상을 인식하는 다양한 상상력과 다양한 표현력을 기반으로 민족 문화의 전통을 현실 생활 속에서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는 데 고전시가는 국어 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행가사는 (1)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상을 소재로 한다. (2) 구성과 내용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3) 비교적 일상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다. (4) 전 후기 작품이 다른 표현 양식을 갖는다. (5) 가치있는 체험을 기록한 것이기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했다.

5)의 177-180쪽에서 김풍기는 <연행가>를 대상으로,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타적 자기인식’에 주목하고, ‘문화 상대주의’의 시각을 강조한다. “<연행가>의 교육적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타자의 설정을 통해서만이 정당한 자기 규정 혹은 민족적 주체의 형성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1)과 3)은 기행가사를 이해와 표현 특히, 표현이라는 문학 교육 일반론에 적당한 자료로서 취급하고, 이에서 교육의 목적을 끌어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목적 기술이 평면적이고 보편적 진술로 이루어져서 읽는 사람의 상식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행가사를 교육해야 하는가로 나아가게 된다.

2)와 4), 5)는 ‘민족’, ‘주체’, ‘자기 인식’, ‘대타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용어로, 앞의 입장보다는 작품의 교육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발표자도 이들의 입장에 보다 더 동조한다. 그러나 항상 교육에서 ‘상대주의’는 위험하다. ‘민족’도 위험하다. 국어교육을 (좁은 의미의) 언어교육으로 보는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민족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²⁾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사이를 고민하고 있는 퍼트남의 의견을 참고하자. 그는 합리적 상대주의란 용어를 쓰는데, 합리적임을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역사’이다.(김효명 역, 2001)

현재까지의 해석 이론이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는 하나의 ‘옳은 해석’이라는 독단적 단언을 피하며, 동시에 모든 해석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완전한 상대주의를 피하는 일이다. 특히 문학교육적 관점에서 해석의 독단론과 텍스트 해석의 자의성, 무한한 주관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편적 평균 체험’³⁾이라는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학 이해 교육에서는 작품을 ‘옳게 읽는다’는 자세보다 ‘잘 읽는다’는 자세라고 본다. 더군다나 과거의 고전문학 작품이 갖는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현재화 된다. 이는 문학 연구는 물론이고, 문학교육이나 문학교육 연구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전문학 교육에는 시간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변모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입을 우리는 ‘시대 인식’ 혹은 ‘역사적 상상력’(한창훈, 2002)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선지식으로 작용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재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작용하는 경우에는 무비판적으로 적용된다. 정서의 <정과정곡>이나 정철의 가사가 나오면 무조건 ‘충신연주지사’로 이해하거나, 현대시에서 윤동주, 이육사라는 작가명이 나오면 저항시라는 관점을 먼저 개입시키거나 한다.

여기서의 어려움은 주로 고전 작품과 역사적 이해의 관련 양상에 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 특정한 개인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교육 체계는 시대 전체의 일반적 특징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를 거시적으로 다룬다면, 즐겁고 유익하게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미시적 역사는

2) 그 위험에 대해 현재의 한국사 교육 현황을 과거와 비교하여 고찰해 보라.

3) ‘보편적 평균 체험’이란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제반 경험의 중간적 양상으로서 정적인 개념이다. 흔히 ‘상식’이나 ‘선경험’과 내포적 의미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종신(1995)를 참고할 것.

사라지고 암기 대상으로서의 연표만 남게 된다. 때문에 문학교육에서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데에는 일반화 된 서술이 아니라 시대에서 시대로 서서히 계승된 모양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나 민족의 변천을 보여줄 구체적 예를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

5. 보편성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몇 가지 문제로 한정하긴 했으나, 여기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격과 거기에 따른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을 온전히 해명할 수는 없다. 이후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본 주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을 다소 자유로운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학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 있지만, 교육적 관심을 담지하면서 바라볼 때, 문학을 ‘가치있는 인간적 체험의 기록’⁴⁾이라고 보는 시각은 특기할 만 하다. 교육에서 가치와 위상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흔히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서 목적을 내재적으로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때로는 단순히 무엇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이돈희, 1983:124-139) 여기서 가치를 문학의 즐거움으로 대체시키면 어떠할까?

“무엇보다도 교육을 처량하게 만드는 것은 문헌학적 주석과 실질적으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줄거리나 등장 인물에 관한 간단한 분석을 붙인 문학을 가르치는 일이다. (49쪽) 단순히 문학에 관한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문학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이다.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문학의 즐거움을 맛본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140쪽)”(오영환 역, 2004)

2) 他者, 이해와 감명, 그리고 교육적 체험

고전문학은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他者”, “오늘날의 시인·작가들이 삶과 피를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몇 세기 전의 문인들도 시대적 환경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삶의 짐을 그 시대의 화법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비상하게 흥미로우며 감명 깊은 교육적 체험이다.”(김홍규, 2002) 이 언급은 고전문학 교육이 가져야 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고전문학의 위상은 고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 오는 것이다.

3) 경험, 계속성, 성장(이돈희 편역, 1992)

“우리의 교육 체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친밀한 애착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친밀한 관계를 배울 가장 좋은 수단인 문학이, 중등 교육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이지현 역, 2002)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의 활동을 체쳐놓고 수학과 과학을 ‘중핵’ 교과로 격상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학습의 형식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인문학이라 부른다. 여기에 포

4) 최재서(1964:11). 참고. 한편 이 책에는 문학기론류로서는 특이하게,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는 절(59-62쪽)이 있는데, 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홍규(1980) 288쪽, 298쪽. 참조.

함될 것은 예술, 특히 문학이다. 윤리적 가치의 탐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건강교육,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 등 ‘인성교육’이라는 명칭에 자주 포함되는 공부, 자기가 속한 국가 공동체의 사회구조, 경제, 제도 등에 대한 공부, 다른 정치 공동체의 사회구조, 경제제도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덜 구체적인 공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 등이 그것이다.”(이지현 역, 2002)

6. 결론

필자는 본 논의를 통해 보편성과 개별 특수성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을 접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 교육 추세상 보편성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갈수록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즉 윤리성 교육을 너무 강조하면), 굳이 고전이라는 역사적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문학교육의 필요를 설명해 낼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정체성 등 개별 특수성을 강조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지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주 방언이나 무가, 전설, 민요 등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흔히 여기서 발견되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거기서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내려 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려고 한다. (특히 향토 교육이라는 이름 밑에 행해지는 교육들이 이런 혐의가 강하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방향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나 공감에 되지 않는 제주 방언, 무가, 설화, 민요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들이 그동안 한국 문학의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던 것은, 한국인의 보편적 심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다 덧붙여 프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알파를 우리는 흔히 제주의 고유성이라 생각하지만, 필자는 생각을 달리한다. 제주만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알파에 인간이 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것들이 그런 장구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교육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학의 제작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그것을 읽는 수용자들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김우창의 ‘심미적 이성’이라는 말처럼, ‘특수성 속의 보편성’이야말로 고전문학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종철(1998),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과 교과서」, 『민족문화사연구』 12호, 민족문화사연구소.
 김중신(1995), 『소설 감상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풍기(2001),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역사적 지평』, 월인.
 김홍규(1980), 「최재서 연구」,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문학교육학회(2000),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 태학사.
 염은열(1999),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이돈희 편역(1992), 『존 듀이 :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돈희(1983), 『교육철학 개론』, 교육과학사. 124-139쪽.
 이홍우 역, 피터스(1980),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137쪽.
 정기철(2001),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제주국제협의회(2003),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으뜸.
 제주국제협의회(1995), 『국제화 시대의 제주 교육』, 한울.
 최재서(1964), 『문학원론』, 춘조사. 11쪽.

한창훈(2002), 「고전문학 감상 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상상력의 역할에 관한 試論」, 『문학교육학』 9집, 한국문학
교육학회.

한창훈(2001),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힐러리 퍼트넘, 김효명 역(2001), 『이성, 진리, 그리고 역사』, 민음사.

화이트, 이지현·김희봉 역(2002), 『교육목적론』, 학지사.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2004), 『교육의 목적』, 궁리.

<『백록어문』 20·21집, 2005>